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27 / 2009.7.10

□ 중국,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상향조정

-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의 공급비중을 기존의 15%에서 18%로 목표 상향조정을 밝힘.
-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20년까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용량도 1.8GW에서 10GW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10GW 이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단지도 개발할 예정임. 풍력발전 잠재능력은 육상 700~1,200GW, 해상 250GW라고 밝히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전력공급구조 개선을 위하여 태양에너지,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중국의 총 발전능력 목표도 당초 1,000GW보다 약 50% 확대된 1,400~1,500GW까지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09년 현재 총 발전능력은 900GW를 넘는 수준임.
- 원자력발전의 생산 비율은 '08년의 2% 수준에서 '20년 5%까지 확대할 예정임.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공급목표도 당초 40GW에서 60~76GW로 상향조정될 전망.

(UPI, 2009.7.6), (China Daily, 2009.7.6)

NEWS

- 중국,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상향조정
- 미국,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에 \$3.5억 배정
- 대만, CPC,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178억 투자 결정
- 일본 기업,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충전설비 개발 추진
- 일본, 지역별 자동차 CO₂ 배출량 공개
- 일본 자민당, 저탄소사회추진 기본법안 국회 제출
- 일본, '20년까지 초·중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추진
- INPEX, 인도네시아 탕구 LNG 프로젝트 첫 수출
- 사우디, 향후 3년간 전력망에 \$280억 투자
- 이란, '15년까지 가스전 개발에 \$750억 투자계획
- 카타르-폴란드, 20년 가스공급 계약 체결
- 쿠웨이트, 석유 가스 개발에 석유메이저 참여 강조
- GCC, 전력거래 협정 체결
- 모건스탠리, '10년 연료탄 가격전망 23% 상향 조정
- 벨기에, 첫 해상풍력발전소 1단계 공식 가동
- 프랑스, 베트남 원자력발전 도입을 위한 협력 강화
- 알제리-튀니지, 에너지부문 협력협정 체결
- 파리시, 저소득층 백열전구 30만개 절약형으로 교체
- 스위스, '08년 태양에너지 관련 설비 판매량 대폭 증가
- 스위스, EU의 전자기기 에너지효율지침 적용 계획
- 네덜란드, '11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 2배 확대 계획
- UN, G8 포함 주요 국가에 '50년 CO₂ 감축목표 설정 촉구
- EU집행위, 발트해 에너지시장 연계계획 승인
- EU, 가스공급안정 위해 우크라이나에 15억 유로 지원 고려
- G8,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기금 제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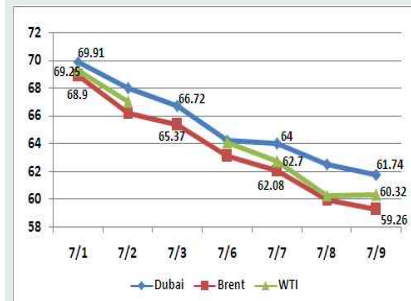
ANALYSIS

- 12월 예정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난항 예상
- 브라질, 암염층 유전개발 활성화 위해 법제개정 추진

REPORT

-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수급 전망 보고서(7월호)

Oil Prices (Spot, \$/bbl)





ASIA, AMERICA & MIDDLE EAST

□ 미국,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에 \$3.5억 배정

- 미국 에너지부 Steven Chu 장관은 6월 29일 주요 에너지 절약대상으로 건물부문을 지적하면서, 경기부양자금 중 약 \$3.5억을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 내 총 8,100만여 개의 건물이 미국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보다 많은 비중임. 전체 건물의 75% 가량은 '79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의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에너지부는 향후 통합된 시스템하에 건물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에너지효율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동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동 부처는 net-zero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최신 건물시스템 연구에 \$1억을 배정함. 이 시스템구축은 냉난방공조설비(HVAC), 조명, 기타 에너지사용 시스템을 지능적으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분 달성될 수 있음
 - ※ net-zero 건물: 외부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건물
-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08년 도입된 “상업용 건물 구상(Commercial Buildings Initiative)”에 \$5,350만을 배정할 예정이며, 현재 25개의 참여 기업수를 73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일반 주택과 아파트를 보다 에너지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7,000만의 자금을 에너지효율 개선관련 직업교육에 사용할 예정이고, 건물 및 전기제품의 기술 및 효율 기준 강화사업에 \$7,250만을 투입할 계획이며, LED 기술연구 및 제조부문에 \$5,000만의 자금을 배정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에너지효율등급(Energy Star rating) 제도를 확대하고, 보다 엄격한 건축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Greentech Media, 2009.6.29)



□ 대만 CPC,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178억 투자 결정

- 대만 국영 정유기업 CPC는 향후 5년간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178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대만 경제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PC의 부회장은 고유가 상황에서 오일샌드 투자가 투자수익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함.
- 동 사는 오일샌드에 대한 정제기술이 8~12%의 원유가 함유된 오일샌드에서 중유(heavy oil)를 추출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되어 있다고 전함.
- CPC는 '08년 7월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의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Indian Oilsands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캐나다는 정제된 오일샌드에서 100만b/d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4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ViewsWire, 2009.7.1)

□ 일본 기업,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충전설비 개발 추진

- 일본 신일본석유 등 에너지기업 8개사는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해 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설비 및 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음. 동 사들은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하는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와도 협력하여 '15년까지 수소연료 공급을 사업화할 계획으로 곧 착수할 계획임.
- 동 사업은 신일본석유 이외에 쇼와셀, 이데미쯔, 코스모석유, 재팬에너지 5개 정유업체와 도쿄, 오사카, 도호 3개의 가스기업이 공동참여하고 있음. 동 사들은 공동출자로 기술연합조합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여 수소추출 및 수송, 충전 등의 기술을 개발하며, 이와 관련된 규격도 통일하여 저비용 생산을 모색할 계획임.
- 그동안 일부 자동차제조업체가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해 왔지만, 차량가격이 비싼데다 수소충전 설비가 부족하여 '07년 수소연료전지차는 일본 전국에 42대가 보급된 상황임.
-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으로,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임.

(Yomiuri新聞, 2009.7.6)

□ 일본, 지역별 자동차 CO₂ 배출량 공개

-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₂를 전국 지역별로 한눈에 알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여 7월 6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였음.
- 일본 국내 CO₂ 배출량 중에서 자동차가 점유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로 연간 약 2.4억 톤에 달함. 특히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CO₂는 '90년과 비교해서 40% 이상 증가되어 대폭적인 감축이 필요함.
- 동 연구소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역별 거주자 등의 주행상황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차종마다 CO₂ 배출량을 적용시켜 지역별 연간 총배출량과 1인당 연간 배출량을 산출하였음.
- 이에 대한 결과로 도시는 철도 등의 대중교통 발달로 인해 CO₂ 총배출량은 많지만 1인당 CO₂ 배출량은 적으며, 지방은 이와 반대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국 지역별 자동차 CO₂ 배출량은 국립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상기 배출량은 '99년과 '05년을 기준으로 인구 1인당 배출량과 총배출량에 대해 지도상에 색상을 구분해서 표시하였으며, 전체 차량에 대한 전국 지역별 CO₂ 배출량 이외에 승용차, 화물차 등의 차종별 CO₂ 배출량도 나타나 있음.

(Yomiuri新聞, 2009.7.3)

□ 일본 자민당, 저탄소사회추진 기본법안 국회 제출

-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7월 7일 초장기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저탄소사회만들기추진 기본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동 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년까지 '05년 대비 60~80% 감축하는 내용이 명기되었으며, 아소 총리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5% 감축에 대한 내용은 국제교섭 합의에 의거하여 설정할 방침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또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목표 설정, 원자력 발전소 증설 및 가동률 향상, CO₂ 무배출형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의 실용화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실시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음.
- 한편 일본 야당인 민주당도 이미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동 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까지 '90년 대비 25% 감축목표 이외에 '11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음.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 등의 부분은 여당의 법안과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여당과 야당은 두 개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Fujisankei Business i, 2009.7.8)

□ 일본, '20년까지 초·중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추진

- 일본 정부는 7월 7일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20년까지 32,000개 공립 초·중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침을 세웠음.
- 현재 1,200개 공립 초·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우선 '12년까지 12,00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임.
- 학교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가정, 기업, 공장 등과 비교해 볼 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계획하고 정비할 수 있으며, 아동과 학생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동 정부는 '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5%로 감축하기 위해서 '20년까지 태양광발전 도입규모를 현재 10배에서 20배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산하였음.

(日本經濟新聞, 2009.7.8)



□ INPEX, 인도네시아 탕구 LNG 프로젝트 첫 수출

- INPEX(국제석유개발)는 7월 6일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LNG 프로젝트에서 첫 생산된 LNG를 한국 포스코사의 광양 LNG 터미널로 출하했다고 발표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주 빈투니에 위치하는 6개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이며, 향후 장기계약에 의거하여 중국 푸젠(福建)성 LNG 터미널로 25년간 연간 260만 톤, 한국 K-Power 및 포스코사에 20년간 연간 115만 톤을 공급할 예정임. 동 프로젝트의 총 LNG 생산능력은 연간 760만 톤임.
- 동 프로젝트에는 동 사 이외에 미쓰비시상사, 미츠이물산, 스미토모상사, 소지츠 등이 출자하였으며, 총 투자비용은 약 5,000억 엔에 달함.

(INPEX, 2009.7.6)

□ 사우디, 향후 3년간 전력망에 \$280억 투자

- 사우디전력회사(SEC)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280억을 투자하여 13GW의 발전용량을 추가하고, 나아가 '18년까지 총 \$700억을 투자하여 누적 25GW 발전용량을 추가할 계획임.
- HSBC에 따르면, 사우디의 인구는 지난 30년간 3배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2%씩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의 인구 증가와 함께 전력수요 또한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여름에는 많은 도시에서 단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파드국왕석유광물대학교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32년까지 연간 140GW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Zawya, 2009.7.2)

□ 이란, '15년까지 가스전 개발에 \$750억 투자계획

- 이란은 '15년까지 사우스파스 가스전과 노스파스 가스전 개발에 \$750억 투자 계획을 밝힘.



- NIOC에 따르면, 사우스파스 가스전에서 연간 약 280억m³를 생산하기 위한 5개년 계획에 \$400억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사우스파스 가스전은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가스전으로 이란은 24개 지구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NIOC는 노스파스 가스전 개발에 \$250억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노스파스전은 개발하기 어려운 천연가스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NIOC는 상세한 투자유치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5월 사우스파스 가스전 개발 자금조성을 위해 3년간 \$123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란의 사우스파스와 노스파스 가스전



(ViewsWire, 2009.7.6)

□ 카타르-폴란드, 20년 가스공급 계약 체결

- 카타르가스는 연간 100만 톤의 카타르산 LNG를 폴란드로 수출하기로 한, 20년('14~'34년)간 가스공급 계약을 폴란드 PGNiG와 체결하였음.



- 이는 카타르가 동유럽 국가와 체결한 첫 계약이며, 계약규모는 연간 약 \$5억 수준임. 폴란드는 수입물량을 인수하기 위해 \$8.48억 규모의 LNG 인수터미널을 발틱해 연안 Swinoujscie에 건설할 계획임.
- 수입물량은 폴란드 국내 수요의 약 10%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는 현재 자국산 가스로 수요의 30%를 충족하고 있으며, 40%는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계속 LNG 공급선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임.

(ArabianBusiness.com, 2009.6.30)

□ 쿠웨이트, 석유·가스 개발에 석유메이저 참여 강조

- 쿠웨이트 경제 부수상은 7월 2일 쿠웨이트의 중장기 원유·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메이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쿠웨이트는 오는 10월에 석유·가스부문 5개년 투자 계획에 대해 의회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세부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비수반가스전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쿠웨이트는 원유생산능력을 현재 310만b/d 수준에서 '20년까지 400만 b/d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가스생산능력을 현재 12억ft³/d 수준에서 '15년까지 15~20억ft³/d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 중 비수반가스 생산목표는 10억 ft³/d임.

(ArabianBusiness.com, 2009.7.3)

□ GCC, 전력거래 협정 체결

- GCC 전력망을 운영하는 담판 소재 GCCIA(GCC Interconnection Authority)는 GCC 6개 회원국(바레인, 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과 7월 6일 사우디에서 회동을 갖고 '전력 교환 및 거래 협정 (Power Exchange and Trading Agreement, PETA)'을 체결하였음.
- PETA는 일반협정 체결 후 두 번째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GCC 전력망 내에서 전력부족이나 단전 시 전력 교환 및 거래 규정과 절차를 담



고 있는 협정임.

- GCCIA에 따르면, 6개국 간 전력교역량은 바레인 600MW/d, 사우디 1,200MW/d, 오만 400MW/d, 카타르 750MW/d, 쿠웨이트 1,200MW/d, UAE 900MW/d임.
- GCC 전력망 프로젝트는 '90년대 중반 각국 정상들의 승인 이후 거의 7년 만에 시작되었으며, GCCIA가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음.
- GCC 관료들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공급 부족이나 단전의 어려움을 겪는 GCC 회원국이 잉여 공급능력이 있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회원국의 전력예비율이 50%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회원국들은 기존 계획보다 적은 수의 발전시설을 건설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GCC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Emirates Business 24/7, 2009.7.4)

□ 모건스탠리, '10년 연료탄 가격전망 23% 상향 조정

- 모건스탠리는 7월2일 발표된 전망보고서에서 '10년 연료탄 가격전망치를 \$80/mt로 23% 상향 조정함. 이는 중국의 연료탄 수입 증가가 시장경색을 초래했기 때문임.
- 동 사는 중국 국내 석탄부문 공급정체 및 수입증가로 이전보다 수급균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10년의 세계 해상운송 수요는 이전 전망치인 6.05억 톤보다 높은 6.23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연료탄 가격은 '11년 \$90/mt까지 38% 상승하고 '13년에는 \$105/mt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08년의 \$125/mt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 동 사는 '09년 5월까지 중국의 수입물량인 연료탄 540만 톤과 무연탄 1,480만 톤을 기초로 하여 연간 수입량을 연료탄의 경우 1,900만 톤, 무연탄 5,100만 톤으로 전망하였음.
- 이와 더불어 중국 산시성 지역의 폐광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



내 생산증가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09~'11년 기간 동안 국내 석탄 생산이 '02~'07년 대비 1/2일 감소한 6~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한동안 중국이 석탄 순수입국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함.

(International Coal Report, 2009.7.6)

EUROPE & AFRICA

□ 벨기에, 첫 해상풍력발전소 1단계 공식 가동

- 프랑스 신재생에너지기업인 EDF EN은 벨기에의 첫 해상풍력발전소인 Thorntonbank 발전소의 1단계(30MW) 설비를 공식 가동한다고 발표하였음. 1단계 프로젝트의 투자비용은 총 1.52억 유로로, 동 발전소는 Zeebrugge 연안에 건설되었으며 독일의 풍력터빈 회사인 REpower가 개발한 5MW급 풍력터빈 6기로 구성됨.
- EDF EN(18.3%)와 영국 신재생에너지기업인 RWE Innogy 등으로 구성된 C-Power 컨소시엄이 동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Thorntonbank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며 최종적으로 '13년 완공 예정이며, 완성된 발전소는 풍력터빈 60기로 구성된 총 설비용량 300MW 규모로, 유럽 최대의 풍력발전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동 발전소의 가동을 통한 전력생산량은 연간 약 1TWh에 달할 전망인데, 총 60만 가구의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연간 45만 톤의 CO₂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벨기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U Energy, 2009.7.3), (Renewable Energy World, 2009.7.2)

□ 프랑스, 베트남 원자력발전 도입을 위한 협력 강화

- 베트남과 프랑스 EDF는 최근 하노이에서 개최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경험에 대한 국제 워크숍”에서 '20년 베트남의 최초 원자력발전



소 건설 및 운영조건을 확인함.

-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발전 전략의 목표는 첫째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전하면서, 동 발전소가 건설되면 '50년까지 국가 전체 상업용 전력의 15~20%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함.
-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아태지역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타당성조사에서부터 프로젝트 개시까지 2년이 걸리고, 계획 및 입찰, 설계, 안전체계 분석에 5년, 건설 및 전국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공식적 작업 이전 사전 실험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됨.
- 베트남 정부는 총 58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국가 전력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험이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베트남은 베트남 첫 원자력발전시설 건설 부지로서 닝투안(Ninh Thuan)성의 Phuoc Dinh와 Vinh Hai 지방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함.

(Vietnam Business Forum, 2009.7.3), (VBusiness Finance News, 2009.7.3)

□ 알제리-튀니지, 에너지부문 협력협정 체결

- 알제리와 튀니지 에너지부는 7월 2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양국의 에너지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 양국은 알제리에서 튀니지로 공급되는 LPG의 수출물량을 현재 연간 1.5억 톤에서 3억 톤으로 증대시키는 데 합의하였으며, 수입한 가스의 자국 내 보급 및 인접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LPG 저장능력 확충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함.
- 또한 현재 220kV인 배전망 규격을 '10년부터 400kV로 승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관리부문에서 양국의 노하우를 교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한편 알제리 국영석유회사 Sonatrach은 튀니지 국영석유회사 ETAP에 '10년부터 Transmed 파이프라인(알제리-이탈리아)의 통과세로 튀니지에



지급되는 가스를 연간 60억m³에서 70억m³로 증대시키기로 합의함.

(El Moudjahid, 2009.7.3)

□ 파리시, 저소득층 백열전구 30만개 절약형으로 교체

- 프랑스 파리시는 '09년 가을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백열전구를 절약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함. 절약형 전구의 가격이 기존의 백열전구에 비해 약 3~7배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사업을 실시함.
- 기존에 사용하던 백열전구 30만개를 절약형으로 교체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임.
- 상기 사업의 시행을 통해 연간 20GWh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효과와 약 1,600 톤의 CO₂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총 200만 유로의 전력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 조명기기 유통업체들은 '08년 10월 에너지소비가 많은 백열전구의 판매를 '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함.
- 지난 6월 30일 이후부터 100W 백열전구의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75W는 '09년 12월, 60W는 '10년 6월, 40W는 '11년 8월, 25W는 '12년 말까지 판매가 전면 금지될 계획임.

(Actu-Environnement, 2009.7.6)

□ 스위스, '08년 태양에너지 관련 설비 판매량 대폭 증가

- 스위스 태양에너지산업협회(Swissola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8년 동국의 태양열 집열판 판매량은 전년대비 약 66% 증가, 1.1만여 가구에서 관련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됨.
- 동국의 '08년 태양열 집열판 설치면적은 총 11만m²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연료유 3,000만ℓ의 절약효과와 8.5만 톤의 CO₂ 감축효과가 나타났음.



- 동 기간 동안 태양광전지 시장 또한 비슷한 양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동 부문의 설비용량은 14.5MW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음.
- 한편 Swissolar는 스위스의 태양에너지 관련 설비의 설치비율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0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가구당 태양열 집열판 설치면적은 스위스에 비해 2~3배 가량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Swissolar는 태양에너지와 관련한 정부지원 재정정책을 동 부문의 성장요인으로 분석, 스위스 연방정부에 지원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 동 국은 향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현재 총 7억 스위스 프랑의 규모에 달하는 2,80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임.

(AWP, 2009.7.1)

□ 스위스, EU의 전자기기 에너지효율지침 적용 계획

- 스위스 정부는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법제 재정비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EU의 전자기기에 대한 에너지지침을 자국법에 적용하기로 결정함.
- 동 정부는 가전제품, 전동기, 전자장비 등의 전자기기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연간 약 1TWh에 해당하는 전력소비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관련 지침이 적용될 경우 연간 1.5억 스위스 프랑에 해당하는 전력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됨.
- 스위스 정부는 회전식 건조기, 제빵용 오븐, 냉동고 등의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에너지효율 A 또는 B 이하의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 지난 10년간 스위스의 전력소비는 총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전력소비 감소를 추진함.
- '08년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90만TJ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용 에너지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난방용 에너지소비는 석유 5.1%, 가스 3.2%, 전력 2.3% 증가하였음.



- EU의 에너지효율 지침은 '20년 EU의 에너지소비를 '90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로 하며,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기에 세부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EU Energy, 2009.7.3)

□ 네덜란드, '11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 2배 확대 계획

- 네덜란드 환경부는 '11년까지 현재 2,000MW인 자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4,000M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금년부터 향후 2년 동안 총 600~800기의 풍력터빈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임.
- 환경부는 7월 7일 지방당국, 환경 및 자연보호단체, 관련업계 대표들과 함께 풍력터빈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서명하였음.
- 또한 향후 6개월 동안 안전성, 소음문제 등과 관련한 기준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간소화할 예정임.
- 네덜란드 정부는 '20년까지 전체 발전비중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네덜란드 환경부는 풍력터빈 제조업체 및 개발업체, 환경보호단체들에 '2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6,000MW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착수할 것을 요청함.

(AFP, 2009.7.7)

□ UN, G8 포함 주요 국가에 '50년 CO₂ 감축목표 설정 촉구

- UN 이보 드 보어(Yvo de Boer) 기후 담당관은 주요 국가들이 이번 7월 8-10일 열릴 G8 정상회담에서 '50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전함. 또한 G8과 중국, 인도, 브라질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ajor Economies Forum, MEF) 국가들이 12월 코펜하겐에서 UN 기후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도덕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G8 정상회담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MEF 국가들은 '50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08년 G8은 기준연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년까지 온실가스 50%를 감축하는 비전에 대한 윤곽을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주요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먼저 '20년까지의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감축목표에 서명하지 않았음.
- UN 보어 기후 담당관은 MEF의 선진국들의 '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도국이 홍수 및 폭우, 폭풍우, 해수면 상승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함.
- 보어 담당관은 '50년 목표 설정 시 다량의 온실가스배출 위험이 있는 저렴한 화력발전소 건설 대신 고비용이지만 청정의 태양에너지 발전소로 투자자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Reuters, 2009.7.6)

□ EU 집행위, 발트해 에너지시장 연계계획 승인

- EU 집행위와 발트해 연안 8개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을 북유럽 및 동유럽의 에너지시장과 연계하는 발트해 에너지시장 연계계획(BEMIP)을 승인하였음.
- 발트 3국은 그동안 에너지부문에서 다른 EU 국가들로부터 분리되었으나, BEMIP 사업을 통해 규제관세와 같은 국가 간 에너지망의 장벽이 제거되고 '13년 북유럽 에너지시장에 통합될 예정임.
 - ※ 발트해 연안 8개국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과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폴란드의 북유럽 5개국에 해당함.
- 발트 3국은 독일과 폴란드의 전력망에도 연결될 예정이며,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바 있는 발트해 지역의 에너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BEMIP 사업으로 가스공급 및 도입선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임.



- 동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유럽 경제회복프로그램, EU 결속기금,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TEN-E)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 BEMIP 사업은 '08년 11월 EU 집행위가 채택한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고찰(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에서 채택된 6개의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우선과제 중 하나임.

(ENDS Europe Report, 2009.7)

□ EU, 가스공급안정 위해 우크라이나에 15억 유로 지원 고려

- EU 집행위와 국제금융기관들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대금 미납 문제로 또 다시 러시아산 가스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일련의 회담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음.
- 6월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1차 협의회에서 EU 집행위와 국제금융기관의 대표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규모를 15억 유로로 설정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의 조건부로 제시하였음.
- EU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및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투자로 우크라이나의 높은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EU로 향하는 가스수송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기업인 Naftogaz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IMF의 123억 유로 규모 차관 프로그램 하에 제공될 것임.
- EU가 소집한 6월 29일 회의에는 IMF,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7월 2일 조정회의가 있었음.

(ViewsWire, 2009.7.2)

□ G8,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기금 제안 검토

- 선진국 주요 8개국(G8)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



최될 정상회담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립에 관한 제안방침을 최종 조정 중임.

- 동 기금의 규모는 \$100억~\$200억 정도가 될 전망이며, 동 기금을 통해서 세계 전체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동 기금 설립 출자에 동참시킬 계획이며, 동 기금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는 의욕이 있어도 기술 및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도국에 에너지절약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도입 지원 이외에 해일에 대비한 방조제 건설 등 온난화에 따른 피해 대책에도 활용할 방침임.
- '08년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에서도 선진국의 출자로 세계은행에 상기와 동일한 기금을 만들었지만, 개도국은 선진국 주도로 만든 기금이라서 이용 조건이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음. 이에 동 기금은 UN에 마련하여 기금을 이용하기 쉽게 만들 계획임.

(毎日新聞, 2009.7.4)



1. 12월 예정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난항 예상

□ 개요

- '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회의에서 181개국이 '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여러 국가 간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
- 경제성장이 우선과제인 신흥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보다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치중하려는 입장이며, 선진국은 실제 요구되는 감축량에서 밀도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비판을 받고 있음.

□ 세부 내용

-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 증가, 일부 지역에서 기후패턴 변화의 가시적 발생, 최근 미국 내 기후변화 대응관련 방향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지 등이 '12년 교토의정서의 만료 이후 만들어질 협약에 힘을 실어줌.
- 원칙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가 450ppm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 유지, 이를 위해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개도국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는 조항 등에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5개월 앞두고 잠정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
- 아시아와 중남미의 신흥개도국들은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의 대량 감축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옴. 중국은 최근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경제성장이 정점에 달한 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는 신규 기후변화협약 도출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펜하겐회의의 성공여부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간 합의 도출에 달려있다고 여기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인도의 배출량도 급증해왔는데 인도의 싱 총리는 새롭게



배출량 제한선을 설정하기보다 태양에너지 플랜트를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선호한다고 밝힘.

-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컨설팅회사인 포인트카본에 따르면 한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들도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음.
- 반면, EU는 선진국에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체에너지 기술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선진국은 미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비판을 받고 있음.
- 일본은 지난 6월 '20년까지 '05년 대비 15%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했던 목표량에서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호주의 감축계획은 국제협약이 체결될 경우 25%를 감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20년까지 '00년 대비 5%에 불과함.
- 이에 반해 다수의 UN 관계자들과 과학자들은 선진국이 '20년까지 '90년 대비 25%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석유업계는 신규 온실가스 감축협약으로 인한 서명국 내에서의 운영비용 상승 및 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비록 어떠한 협약도 목표시행을 강제하는 방법에 관해 명기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상한거래제(cap-and-trade) 및 탄소세가 석유 생산·정제·석유화학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만약 아시아 국가들이 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한다면 유럽과 미국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음.
- 미국 석유화학 및 정제협회(the National Petrochemical & Refiners Association, NPRA)는 만약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해외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함.
- 사업기회를 균등화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감축목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세부과 방안은 미국 하원에서 지난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시킨 기후법안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반대자들은 동 규제방안들이 화석연료 및 에너지집약적인 제품의 교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일부 국가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차별적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을 제시해왔지만, 반대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뿐이라 반박함.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9.7.6)

2. 브라질, 암염층 유전개발 활성화 위해 법제개정 추진

□ 개요

-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09년 5월 산토스 분지의 암염층 Tupi 유전에 대한 시험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생산량은 14,000b/d 정도가 추정됨. Guara와 Iara 유전은 각종 계약체결 등의 문제로 인해 '11년 시험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페트로브라스의 파트너인 영국 에너지기업인 BG는 Tupi 유전에 대한 최대 생산량이 100만b/d, Iara 50만b/d, Guara 15만b/d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현재 브라질 정부는 암염층 탐사개발에 관련한 법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법안에는 신규 암염층 광구에 대한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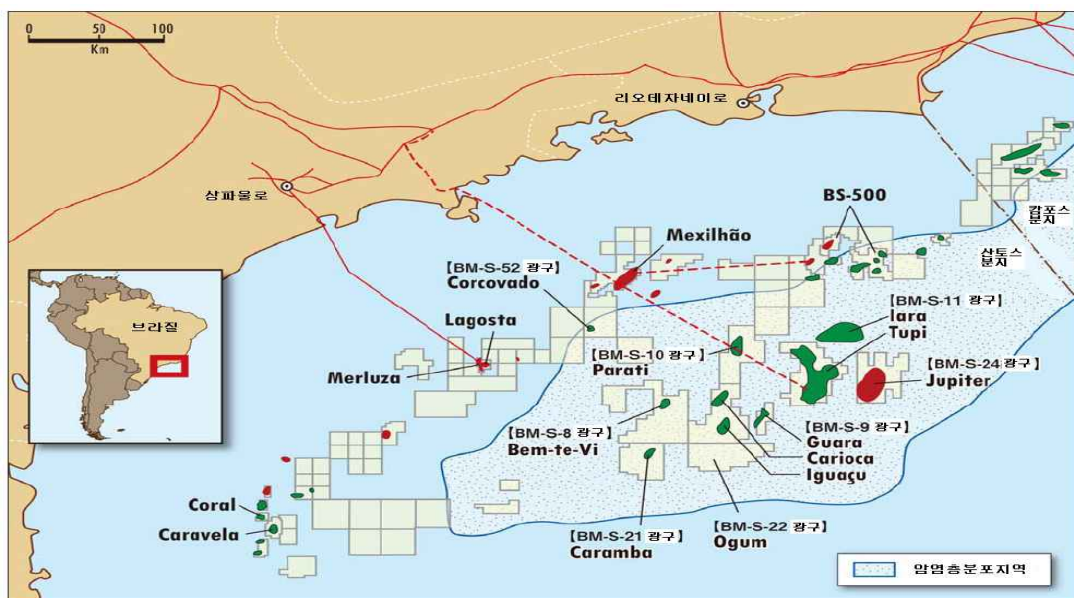
□ 세부 내용

-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09년 5월 1일 산토스 분지 BM-S-11 광구의 Tupi 유전에 대한 시험 생산을 개시하였음. 9개월간 1-RJS-646 유정에서 시험 생산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생산량은 14,000b/d 정도로 추정됨.



- 동사의 이번 시험 생산 개시는 상업적 생산이 아닌 어디까지나 시험 생산이며, 이는 산토스 분지의 암염층 전체에 대한 탐사개발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또한 동사는 BM-S-11 광구의 수심 2,145m 해역에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O) 등을 설치하여 '10년 12월부터 동 유전의 파일럿 시험 생산을 2년간 실시하여 10만b/d를 생산할 계획이며, Tupi 유전에 이어 '10~'11년 시험 생산의 개시가 예정된 Guara와 Iara는 각종 계약체결 등의 문제로 인해 '11년 시험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페트로브라스의 파트너인 영국 에너지기업인 BG는 Tupi 유전에 대한 최대 생산량이 100만b/d, Iara 50만b/d, Guara 15만b/d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페트로브라스는 '07년 11월 Tupi 유전 발견 초기 원유·가스 가채매장량이 50~8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산토스 분지 주요광구 및 유전



- 현재 브라질 정부는 암염층 탐사개발에 관련한 법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법안에는 신규 암염층 광구에 대한 계약형태를 현재 이권 (Concession)계약에서 생산물분배(Production-sharing)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페트로브라스 이외의 새로운 국영 석유기업을 설립하며,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석유수입을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브라질 광물에너지부 로바우 장관은 금년 6월 중순까지 동 법안을 완료하여 12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며, 빠르면 '10년에 암염층 광구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상원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강하며, '1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10년 중에 법안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09년 1월 페트로브라스가 발표한 '비즈니스플랜 ('09~'13)'에서는 '09부터 '13년까지 5년간 \$1,744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80억은 암염층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우선 '09년부터 '10년까지 필요한 투자금액은 \$636억 정도로 이 중 \$225억은 브라질 국책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금융지원으로 용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최근 유가하락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동 사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상황임.
- 이에 동 사는 석유시추선 및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O)의 건조비용(총 \$250억~\$300억) 지불대신 산토스 분지의 광구 지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현대, 삼성, 대우기업과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사는 금년 5월 초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억을 빌린 사실도 밝혀졌음.
- 또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에서 10년간 \$100억의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09년 15만b/d, '10년부터 9년간 20만b/d의 석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브라질의 암염층 탐사개발은 상업적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모색할 부분이 많으며, 향후 Tupi 유전에 대한 시험 생산결과에 따라 본격적 개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가 배럴당 \$35 수준으로 하락하여도 Tupi 유전과 같은 암염층 하부의 원유개발은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oilgas-info.jogmec.go.jp, 2009.6.22)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수급 전망 보고서(7월호)

□ 개요

-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7월호 단기전망 보고서에서 '09년 세계 석유수요를 8,385만b/d로 전월 전망치 대비 17만b/d 상향 전망
 - '10년 세계 석유수요는 8,479만b/d로 전월 전망치대비 38만b/d 상향
- '09년 연평균 국제유가(WTI 기준)는 \$60.35/bbl로 전월대비 \$1.65/bbl 상향 조정
- '09년 천연가스(Henry Hub) 연평균 현물가격은 \$4.22/Mcf¹⁾로 전망
 - 전월 전망치 \$4.13/Mcf 대비 \$0.09/Mcf 상향 수정
- '09년 가정용 전력가격은 11.9¢/kWh로 전망

□ 세부 내용

- 세계 석유수급
 - 기대 이상의 경제활동(특히 아시아)으로 인해 유가가 6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함. 시장은 세계 경기회복 및 향후 예상되는 석유수요 증가가 현재의 석유소비 약세와 높은 재고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b/d)

구분	2008(실적)	2009	2010
수요(A)	85.41	83.85(+0.17)	84.79(+0.38)
OPEC 공급(B)	35.72	33.51(+0.16)	34.58(+0.25)
비OPEC 공급(C)	49.78	50.14(-0.01)	50.19(+0.02)
공급(B+C)	85.50	83.65(+0.15)	84.77(+0.27)
재고변동**	0.09	-0.20(+0.02)	-0.02(+0.11)

()는 전월 전망치대비 증감

**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1Mcf=백만 cubic feets



- OPEC에서의 생산제한 지속과 이란 및 나이지리아의 정세불안이 유가를 지지하고 있음. 다운사이드 리스크 요인은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약세이며, 세계 잉여생산능력의 과다하고, 제품 재고가 높은 경우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08년 하반기부터 '09년 2/4분기까지 세계 원유 수요는 감소했음. '08년 4/4분기부터 '09년 2/4분기까지 세계 원유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300만b/d가 감소.
- '09년 세계 원유수요는 전년대비 160만b/d 감소, '10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회복 전망에 힘입어 90만b/d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OPEC의 2/4분기 원유생산량은 평균 약 2,860만b/d로 추정되는데, 이는 1/4분기보다 10만b/d 감소, '08년 3/4분기보다는 310만b/d 감소한 수준임.
- 비OPEC의 올해 원유생산량은 5,014만b/d로 전년대비 36만b/d 증가하고, '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석유수급
 - 미국의 '09년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27만b/d 증가한 523만b/d, '10년에는 536만b/d로 전망.
 - 미국의 '09년 총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65만b/d 감소한 1,885만b/d, 10년에는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1,916만b/d로 늘어날 전망.
 - '08년 여름 이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09년 휘발유 수요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원유 및 제품가격
 - WTI 연평균 유가는 '09년과 '10년에 각각 \$60.35/bbl, \$72.42/bbl로 전망. 이는 전월대비 각각 \$1.65/bbl, \$5/bbl 상향 조정됨.
 - 미국 휘발유가격은 '08년 \$3.26/gal에서, '09년 및 '10년에 각각 \$2.36/gal, \$2.69/gal로 전월 전망치 대비 각각 3¢/gal, 13¢/gal 소폭 상향 전망됨.
 - 경유가격은 '09년과 '10년에 각각 갤런당 \$2.46, \$2.79로 전망.
- 미국 천연가스 수급



- 미국의 '09년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621억ft³/d가 될 전망이며, '10년에는 620.7억ft³/d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09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0.6% 감소한 558.3억ft³/d로 전월 전망대비 21억ft³/d 하향 수정되었으며, '10년에는 2.9% 감소한 541.7억ft³/d로 전망.
- '09년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1,540억ft³ 증가한 약 5,060억ft³(약 14.3 백만 톤)으로 전망.
- 천연가스 가격
 - Henry Hub 현물가격은 '09년과 '10년 각각 \$4.22/Mcf, \$5.93/Mcf 전망. 전월 전망치(\$4.13/Mcf, \$5.49/Mcf) 대비 각각 상향 조정된 것임.
 - '09년 6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3.91/Mcf로, 이는 전월대비 \$0.05/Mcf 하락함. 시장 균형이 좁혀짐에 따라 '10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
- 미국 전력소비 및 가격
 - '09년 1/4분기 미국의 전력소비는 산업부문의 소비 둔화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함. '09년 총 전력 소비는 전년대비 2.0% 감소할 것이지만, '10년에는 0.8% 증가로 회복될 전망이다.
 - '09년과 '10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각각 전년대비 4.4%와 3.4% 상승한 11.9¢/kWh, 12.3¢/kWh로 전망됨.
- 미국 석탄수급 및 가격
 - 총 발전량 감소 및 기타 발전원 가동 증가로 인해 미국의 '09년 발전부문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대비 5.2% 하락한 9.9억 톤²⁾으로 전망.
 - 미국의 '09년 석탄 생산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한 10.79억 톤, '10년에는 0.5% 증가한 약 10.84억 톤으로 전망.
 - '09년과 '10년 발전용 석탄가격은 각각 \$2.15/mmBtu, \$2.02/mmBtu로 전망.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09.7.7)

2) 미국의 경우 톤을 short ton으로 사용함.